

제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성장 속 그림자

도 용역 결과 가격 경쟁력·지역화폐 연계성 우수 평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운영사 매년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최저 중개 수수료와 고객 대상 배달비 지원, 탐나는전 적립 혜택으로 가맹점과 이용자 수를 단기간에 크게 늘렸지만, 정자 앱 운영업체는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에 의뢰해 진행한 '제주형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 및 성과 평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제주지역에서 '먹깨비' 공공배달앱 사업이 시작된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4만 4365명에서 올해 4월 기준 5만7954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또 도내 가맹점 수는 지난해 3358곳에서 올

해 4월 기준 4279곳으로 약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용역진은 먹깨비 성장 요인으로 낮은 수수료와 배달비 지원 정책, 탐나는전 적립 혜택 등을 꼽았다.

민간 배달앱은 가맹점으로부터 6~12%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먹깨비는 업계 최저인 1.5%를 받는다. 또 제주도는 '먹깨비' 활성화 위해 이용자에게 3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결제한 금액의 10~1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용역진은 특히 지역화폐의 연계성이 다른 민간 배달앱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며 그 근거로 전체 주

문 건수의 59%가 탐나는전으로 결제된 점을 들었다.

또 용역진은 소비자가 먹깨비를 통해 주문했을 때 실제 지불하는 배달비가 민간 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용역진이 각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분식업종에서는 먹깨비가 900원, 배달의민족 1700원, 요기요 2500원, 쿠팡이츠 1200원으로 먹깨비가 가장 저렴했고, 한식업종에서도 먹깨비 1600원, 배달의민족 1700원, 쿠팡이츠 2200원, 요기요 2900원으로 먹깨비가 가장 싸다.

치킨업종의 경우 쿠팡이츠 1300원, 먹깨비 1520원, 배달의민족 2300원, 요기요 3100원으로 먹깨비가 두 번째로 저렴했다.

문제는 먹깨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앱 운영사는 적자에 허덕이면서 공공배달앱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데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먹깨비 운영사의 총 자산은 13억2100만원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7억400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 영업이익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용역진은 "현재 상태가 지속할 경우 단기적 생존은 가능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재정적 자립과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익 모델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와 먹깨비 운영업체와의 협약 기간은 내년까지로 도는 지난 3년 간 운영사에 총 11억6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상민기자

문인관에서

청소년 무료버스, 성과와 보완 과제

지난 8월 1일부터 제주도에선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제1회 도의회에서 제안한 이 정책은 부모님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에게는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책 시행 한 달,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그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개학 후 청소년 버스 탑승률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다고 한다. 이는 정책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 학부모들은 "매달 수만 원 들던

청소년·학부모 만족도 ↑ 교통비 절감 그치지 않고 삶의 반경 넓히는 효과

자녀의 버스비 부담이 사라져 가계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학생들 역시 "버스비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체육관·문화시설 등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일상 속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정책이 교통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학습권과 문화 향유권, 나아가 삶의 반경을 넓히는 성장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정책의 의미는 크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가용보다 버스를 선택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교통 혼잡 완화, 탄소 배출 감소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점이 의미가 크다.



강경운
제주도의회 의원

이전 교육청은 통학거리가 1.5km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이들 학생도 혜택을 받게 되었고, 방학이나 휴일에도 청소년 누구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원은 도교육청은 기존 통학비 지원 예산 105억원 중 95억원을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도청 역시 버스 증차 없이 현행 체계 내에서 이전 청소년 수입금 약 75억원보다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두 기관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린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제 막 첫발을 댄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읍·면 지역은 여전히 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들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통카드 발급 절차가 번거롭거나,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한 혼선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만 무료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학생이나 청년, 저소득층 성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달 도의회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학생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은 시행에서 정착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의원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더 많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203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문의 760-2142-6, 문의기자 ms@ihalla.com



성음민속마을 방문 기념 '찰칵' 1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민속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도민들이 바라는 내년 예산 우선순위는... 환경-사회복지-보건-안전-교육 순

도민 1474명 설문 참여
제주도민들은 새해 예산 편성 시 환경, 사회복지, 안전 분야에 우선 투자를 희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

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4주간 QR코드와 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민원실(도청, 시청, 읍면동) 설문지를 통한 현장 조사로 이뤄졌다. 참여자는 총 1474명이다.

설문 결과 도민이 선택한 우선 투자 순위는 환경(17.6%), 사회복지·보건(14.3%), 안전(12.4%) 순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교육(10.7%), 산업·기업 및 에너지(10.4%), 교통·물류(8.6%), 일반 행정(8.1%), 문화·체육·관광(7.0%), 농림·해양수산(6.0%), 국토·지역 개발(4.7%)을 택했다.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한 설문

서는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응답률 60%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또한 유사할 것(31.1%), 약간 호전될 것(17.7%)이라는 답이 뒤를 이어 재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세출 효율화(47.2%),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30.4%)을 들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내 임대업장 운영자 모집 안내

1. 임대업장 기본 내용

구분	용도	현 운영	위 치	임대면적	비고
1	도·소매점	기념품점	호텔 지상 1층	68.29㎡(21평)	

2. 공통 사항

- 상기 업장은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종료 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에게 관리권을 요구 할 수 없음
- 시 설 물 : 영업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는 임차인이 부담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영업허가 자유 승계관련 서류 제출 포함) 있음.
- 계약조건 : 보증금 원납 (현금 예치) 후 임대료 월 납입조건
- 관 리 비 : 임차인 부담 (전기 및 수도료는 고지금액 면적 대비 분할 청구)
- 계약주체 : 개인 (공동명의 불허) 및 법인 모두 가능
- 업종 변경 등 문의 사항은 사전 협의 필요 (임정 판매상품 他 업종과 중첩상품 판매 불가)

3. 기타 사항

- 필요한 경우 운영할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복수의 업체가 임대 희망 시 당사 내규에 의하여 입찰을 진행 할 수 있음
- 기타 임대 관련 궁금 사항은 유선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안내 가능함

4. 문의처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총무팀 ☎ 064-731-5611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職 員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시공 / 징크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책임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심의회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